

콕시디움 설사병

포유자돈에서 콕시디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일령 포유자돈에게 항 콕시디움 제재를 구강으로 투약하면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가끔 포유자돈에서 모유를 먹지 않은 공복의 포유자돈에게 항 콕시디움 치료제재를 구강으로 투약하면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항 콕시디움 제제도 일반 항생제와 같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내성이 유발되기 때문에 동일한 약을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채 찬 희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

(1) 서론

여름철의 무덥고 습한 날씨에서 자주 발생하는 포유자돈의 설사병은 원충인 콕시디움 설사병이다. 최근 서울대학교 병리학 교실에도 많은 수의 콕시디움 설사병이 의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많은 사양가는 아직도 콕시디움 설사병은 닭에서만 있는 질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항생제 치료를 해도 완벽한 치료가 안되는 경우 콕시디움 설사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본인의 임상경험으로는 콕시디움 설사병은 자주 대장균 감염을 동반하므로 예방을 할때에도 두가지 질병을 같이 고려해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2) 원인체

콕시디움 설사병은 *Isospora suis*에 의해 유발된 원충성 질병이며 5일령에서 3주령의 자돈에서 발병한다. 돼지에서 감염되는 콕시디움에는 3가지 종류의 *Isospora*가 있지만 *I.suis*만이 병변을 일으킨다. 최근에는 농장에서 항생제로 치유가 안되는 설사의 원인이 *Isospora suis*로 진단되어지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3) 역학

콕시디움의 유충이 발화하는데 2~3일이 걸리므로 1~3일령의 자돈에서는 발병을 하지 않는다. 농장에서 일반적으로 3~4일령 또는 7~14일령의 포유자돈에서 설사를 일으킨다. 반면에 심급성형과 급성형의 괴사성 장염은 1~3일령의 자돈에서 발병한다.

콕시디움의 유충이 발화하는데 30°C~37°C가 가장 최적의 온도이기 때문에 여름에 자주 발생



한다. 환경적으로 분만사의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있는 농장에서 자주 발생한다.

(4) 육안병변

콕시디움 설사병의 주 임상증상은 노랑색에서 회색의 설사를 하는 것이다. 설사변은 매우 된 것이 특징이다.

육안소견은 섬유소성 괴사성막이나 공장이나 회장을 덮고 있는데 이런 육안소견은 괴사성 장염의 병변의 위치는 보통 콕시디움의 병변보다는 공장시작 부위에서 간단하고 빠른 진단법은, 자돈의 변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변을 물에 부유시켜 도말(smear)하면 지방과 콕시디움의 원충을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변을 직접 도말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도움이 된다.

(5) 진단

콕시디움 감염을 제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병리조직학적 검사방법이다.

포유자돈의 공장과 회장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장 상피세포의 표면에서 콕시디움 원충을 관찰할 수 있다. 콕시디움 설사병은 반드시 살아있는 포유자돈을 진단기관에 의뢰해야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 있다. 단지 분변만을 의뢰할 경우 종종 대장균 설사증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6) 예방과 치료

콕시디움은 환경성 질환이다. 다시말해서 모든 자돈으로 수직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만사 자체가 오염되어 있어서 분만한 포유자돈에게 감염을 일으켜 설사를 유발한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뜨거운 스팀을 이용하여 분만사와 분만틀을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콕시디움 원충은 표백제에 약하기 때문에 스팀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표백제 사용도 효과적이다.

포유자돈에서 콕시디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일령 포유자돈에게 항 콕시디움 제제를 구강으로 투약하면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가끔 포유자돈에서 모유를 먹지 않은 공복의 포유자돈에게 항 콕시디움 치료제제를 구강으로 투약하면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항 콕시디움 제제도 일반 항생제와 같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내성이 유발되기 때문에 동일한 약을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국내에서 포유자돈 설사를 진단해본 결과 많은 수의 콕시디움 증상을 나타내는 포유자돈에서 대장균이 복합적으로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항콕시디움 제제와 항생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보통 콕시디움 치료제제를 2개월간 분만되는 포유자돈에게 3일령에 투약하면 농장에서 완벽하게 콕시디움 설사병을 치료할 수 있다.